

新年辭

정유년(丁酉年) 희망찬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늘 그러했듯이 올해도 가벼운 설렘과 벅찬 기대로 새해를 맞고 싶습니다. 절망보다는 희망을 노래하고 싶습니다. 분노보다는 평온이 우리 맘속에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올해 2017년은 운동주 시인이 탄생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새해 아침,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랐던,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시인을 떠올리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아갈 길을 가늠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어둠 속에서 연젠가 홀연히 닥친 ‘아침’을 기다리던 시인처럼, 우리 또한 새벽녘 뒹켜 우는 소리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시인이 살았던 그 시대나 지금의 이 시대나, 기나긴 터널처럼 어둠기는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입니다.

암흑의 시대에 별을 노래했던 운동주는 부끄러움을 아는 시인이었습니다. 새해를 맞으며 시인을 떠올리고 또한 더욱 그리워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가 부끄러움을 잊어버린 까닭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 돌아보면 저들은 저들의 사전에 ‘부끄러움’이란 단어를 아예 삭제해 버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망의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떠올리게 되는, 저 국정 농단 세력을 말입니다. 저들은 세상을 그토록 놀라게 하고도 내 탓이라 눈곱만큼의 반성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찍이 맹자는 “수오지심(蓄惡之心)을 간직하고 따르면 성현(聖賢)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지만, 반대로 그 마음을 잃고 따르지 않으면 금수(禽獸) 같은 존재가 된다”고 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잃고 ‘짐승’이 되어 버린 저들 앞에서 우리는 치를 떨며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언제까지 부끄러움은 우리의 몫이어야 할까요?

지난해는 참담했습니다. 저들의 농간이 드러나

도 넥타이를 맨 회사원도, 좌파도 우파도, 너도나도 모두 광화문으로 금남로로 달려 나갔습니다.

그 결과, 온통 무능으로 범벅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됐습니다. 위대한 촛불의 힘입니다.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세계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촛불 혁명’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연말이면 발표하는, 교수들이 직접 뽑은 2016년의 사자성어에 ‘군주민수’(君舟民水)가 선정된 것은 매우 적절해 보입니다. ‘임금은 배요 백성은 물’이며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주가 어리석고 무능해 나라 상황이 갈피를 못 잡는 형국’로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거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을 비롯한 저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여전히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는 우리는, 오로지 아버지 박정희의 명예 회복의 지 외에는 하는 일 없이 미용에만 신경을 썼던 박근혜의 배를, 지금 흔들고 또 가라앉히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배가 기울고 있음을 지켜보면서도, 그때 세월호 침몰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흘렸던 ‘피눈물’의 의미를 아직 모르

다. 국정 농단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운영의 틀인 헌법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4년 중임 대통령제와 의원집정부제·의원내각제 등으로 엇갈려 서로 치고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 뻔합니다.

개헌을 꼭 해야만 한다면 권력의 차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치권의 이해득실 계산은 배제해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나라의 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시인 운동주가 기다렸던 찬란한 아침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는 언 손으로 밟는도록 촛불을 잡던 이들의 세상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는 국적을 되찾아 반듯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합니다. 이것이 역사적 소명이고 상처 입은 국민의 소망일 것입니다.

“해가 뜨면 일하고(日出而作), 해가 지면 쉬고(日入而息), 우물 파서 마시고(鑿井而飲), 밭을 갈아 먹으니(耕田而食), 임금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帝力于我何有哉)” 새해엔 우리 모두 요순시대의 격양가(擊壤歌)를 다 같이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광주일보가 창사 65주년을 맞는 특별한 해이기도 합니다. 광주일보는 늘 그랬던 것처럼을 한 해도 호남의 정당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지역민의 삶을 풍족하게 하며,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고장 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힘을껏입니다. 새해 벽두(劈頭), 다시 한 번 애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월요광장



최 지 호
전남대 경영학부 교수

2017년 새해가 밝았지만 추운 겨울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수의 기관에서 예측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2.5% 내외다. 트럼프 당선, 미국의 금리 인상, 브렉시트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

더욱 빠르게 진행될 4차 산업혁명에 올라타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국내의 경우 해운업과 조선업의 위기는 현실화됐고, 정치의 위기가 전 사회를 휘감고 있다.

기업은 항상 생존을 고민한다. 적자생존의 법칙이 가장 냉엄하게 적용되는 비즈니스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겨울은 언제든지 다시 온다

려다 보면 자칫 당장의 생존에 도움을 주는 단기 이익에만 집착하는 근시안적 사고를 가질 위험이 있다. 궁극적인 목적과 의미에 대해 깊게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 경영의 기본은 생존부동식에서 출발한다. 가치(V) > 가격(P) > 원가(C). 풀어보면 ‘소비자가 느끼는 제품의 가치(value)가 가격(price)보다 크고 또 가격은 생산자가 부담하는 원가(cost)보다 커야 한다’는 논리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의 가치가 가격보다 커야 이익이 생기고 기업 입장에서는 제품의 가격이 원가보다 커야 이익이 생기므로 이와 같은 공식이 성립하는 것이다.

기업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줘야 존속할 수 있다. 소비자는 아무 제품이나 무조건 사주지 않는다. 제품의 가치가 가격보다 크다고 느낄 때만 구입한다. 소비자가 느끼는 가치를 계량화하기는 어렵지만 그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실체이다.

공급 측면의 조건을 살펴보면, 기업은 가격이 코스트보다 커야 생존할 수 있다.

제품의 가치는 제품의 가격보다 커야 하며, 제품의 가격은 제품의 코스트보다 커야 한다. 바로 이 조건이 소비자과 공급자 모두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므로, 이를 ‘생존부동식’(가치>가격>코스트)이라 하는 것이다.

시대 변화에 따라 제품의 의미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에 적합한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객들이 실질적인 사용 경험을 일마든 공유하고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마케팅의 조작적 행위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다.

각각의 제품이 가지고 있는 절대가치, 진정한 가치를 두고 의사 결정을 내리는 너무나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우리 제품이 좋다고 설득하는 것은 절대가치의 시대에 시간 낭비일지 모른다. 본질적인 가치 창출이 필요하고, 실제 사람들이 제품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는지 집중해야 한다.

제품의 의미 변화에 기초한 가치 변화도 중요하다. 과거 양초는 불을 밝히는 수단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환영하는 도구가 되었다. ‘프라이스캔들’은 더 밝고,

더 오래 쏠 수 있는 양초 생산에 집중했다. 반면 ‘양키캔들’은 양초 본연의 목적이 아닌 액세서리 개념으로 접근했다. 사람들이 유리병 안에 들어 있는 양키캔들 제품을 사는 건 불을 켜기 위해서가 아니라 손님을 환영하거나, 좋은 분위기를 만들거나, 좋은 향을 맡으려는 용도다. 사람들은 양초라는 제품이 아니라 환대라는 의미를 사는 것이다.

디지털카메라는 추억을 저장하는 도구에서 타인과 소셜미디어에서 소통하기 위한 도구로 변화되고 있다. 24시간 불 밝힌 편의점의 ‘도식락(樂)’은 요즘말로 가성비가 좋아서 지갑이 가벼운 2030세대를 위로하는 소울푸드로 거듭났다.

만만치 않은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미래가 오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미리 내다보고 대비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겨울은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경영 환경에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기업들에게는 항상 겨울이 오고 있는 중인지도 모른다. 생존부동식에 기초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가치를 만드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법조칼럼



정 일 군
광주지검 검사

검사로서 많은 피해자들을 접하면서 느낀 점 중 하나는 이들 가운데 상당수가 형사처벌보다는 실질적인 화해 내지 피해회복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은 금전적인 피해회복을, 기타 범죄의 피해자들은 재발방지나 감정의 회복 등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

검사로서 보람을 느낀 업무 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화해하는데 도움을 주어 형사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되

처벌보단 화해·합의 유도하는 형사조정제도

었을 때이다. 형사분쟁에 있어서도 당사자간의 화해는 범죄인의 양심을 막을 수 있다는 형사정책적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되어온 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자발적인 화해를 이끄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음에도 좋은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가 많다. 연일 야근을 하면서 당사자의 화해를 이끌기 위하여 충분한 시간과 정성을 쏟아붓기 어려운 이유 때문일 수도 있다. 또 업계 및 지역 실정에 대한 무지, 검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거부감, 나이에 대한 편견 등의 이유에 의하여 검사가 종국적인 화해를 이끄는데 한계가 있기 도하다.

이러한 한계점에 착안해 고안된 제도가 형사조정이다. 검찰청에서는 2009년 10월29일부터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과 아울러 지역사회의 동참을 통한 형사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촉진하기 위하여 형사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

역의 법조계·교육계·의료계·종교계·문화계·언론계 등 각계에서 형사조정에 필요한 조정능력 및 법적지식 등의 전문성과 학식·덕망을 갖춘 사람들을 형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해 지역에서 발생한 형사분쟁을 그 지역의 구성원으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해결하게 하는 데 취지가 있다.

광주지검은 형사분쟁 관련해 업계 및 지역 실정을 잘 알고, 그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를 형사조정위원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조정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또한, 형사조정위원은 같은 지역 사람이라는 동질감으로 인하여 당사자의 말을 경청하게 되고, 당사자는 형사조정위원의 전문성 및 지역유지라는 사회적 위치 등으로 그들의 말을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형사조정위원들은 형사조정에 대한 열정과 위원으로서의 자부심으로 헌신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 형사조정 성사율도 58.4% 정도로 놀라울 정도에 이른다.

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한 사건에 대해서는 각하 등으로 처분하거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하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분쟁이 종국적으로 해결될 뿐만 아니라 중대범죄의 해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서 일거양득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필자는 타지역 근무시에는 형사조정에 대하여 별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광주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형사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한 결과 당사자들로부터 많은 감사전화를 받았다.

어느 지역사회나 구성원들간의 갈등이 있गे 마련이지만 형사절차에 의해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경미사안은 지역사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리라 본다.

광주지검 형사조정위원들의 헌신과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지역공동체 형성에 일조하고 있는 광주지검의 형사조정제도에 보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無 等 鼓

닭의 해다. 인간과 가장 밀접한 가축을 말하라면 대부분 닭과 개를 꼽을 것이다. 닭은 식량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달걀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경제성까지 갖춘 가장 서민적인 가축이다.

닭과 친숙한 나라로 반드시 빠지지 않는 나라가 프랑스다. 프랑스의 닭은 국민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애민 사상에 기반을 둔 국가의 상징 새이기 때문이다.

양리 4세(1553~1610)는 종교전쟁 후, 혼란기의 프랑스를 수습하고 근대국가로 도약하는 기반을 닦은 부르봉 왕가의 시조이다. 거둬된 전쟁으로 피폐해진 한 노력을 기울였다. 백성들이 배불리 먹기를 바랐던 그는 “하느님은 내 왕국의 모든 국민들이 일요일이면 닭고기 먹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했다. 이후 그의 노력으로 프랑스 국민들은 매주 닭고기를 먹을 정도로 여유가 생겼고, 자연히 닭 요리가 발달했다.

하지만 닭이 국가의 상징이 된 것은 합당한 여정을 거친 뒤 가능했다. 프랑스 혁명 시기 나폴레옹은 “닭은 힘이

없으므로 프랑스 같은 제국을 상징할 수 없다”며 닭 대신 독수리로 프랑스의 상징을 바꾸게 했다. 당시 독일·오스트리아·폴란드 등 상당수 유럽 국가들은 닭수리를 국가 상징으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1830년 닭이 의복 단추에 새겨지고, 군대 깃발에 그려지면서 국조로 자리 잡게 됐다. 프랑스의 닭 사랑은 스포츠웨어인 르조그 스포르티브의 심벌에서도 엿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80년대만 하더라도, 마당 있는 집이면 도시에라도 상당수가 닭을 키웠다. 학교 앞에서 산 병아리를 키우 중들이 되면, 부모님이 시장에 내다 팔았던 기억이 아직 선하다. 삼계탕·닭백숙 등의 보양식에서부터 닭볶음탕 그리고 현대의 ‘치맥’에 이르기까지 닭 요리는 우리 국민의 대표 음식이 됐다.

고병원설 조류 인플루엔자(AI)로 2400여 만 마리가 넘는 닭이 살처분됐다. 달걀도 부족해 이곳저곳에서 난리다. 정부는 정유년 시작과 함께 AI 종식에 힘을 기울여, 서민이 닭과 달걀만이라도 제때에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작심삼일 악순환 끊게 매일을 새해처럼 보내자

2017년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많은 이들이 새해가 되면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우곤 한다. “담배를 끊겠어”라든지 “운동을 꾸준히 하겠어”, “자격을 따겠어”, “연애를 하겠어” 등등 신년이면 늘 세우는 목표다.

하지만, 연초 계획은 쉽사리 지켜지지 않고 우리는 또 내년이 돌아오길 기다린다. 다시 목표를 세우기 위해 말이다.

어떻게 하면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까. 사실 ‘새해’라는 것 때문에 너무 많은 의미부여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담배는 새해 시작하면서 끊을 수도 있지만 8월에도, 12월에도 꼭 신년 목표가 아니라도 끊기 시작할 수 있지 않은가. 운동도 그렇고 연애도 그렇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새해가 돼야 이런 목표들을 세우곤 한다. 이 틀을 깨면 조금 더 목표를 세우고 싶

행하기 수월해지지 않을까?

1월에 마음먹고 시작했던 운동을 2월에도 다시 시작하고 5월에도 다시 시작하면 꾸준히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더 나아가 하루하루의 시작을 항상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하기 시작하면 매일 하루가 새해의 첫날처럼 뭔가 특별한 날처럼 인식되지 않을까?

사실 ‘날짜’라는 숫자를 빼고 보면 1월1일이나 1월2일이나 똑같은 하루의 시작이니 말이다.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는 사실 자체가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 내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든 2017년 첫날이 밝아 올랐다.

새해에는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하루하루가 새해의 첫날처럼 소중하고 특별한 날날들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강선철·log1984 대표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독신정·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지 부 220-0632 사 회 부 220-0642 사 회 2부 220-0652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문 화 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220-0515 <FAX 222-8005> 227-9600 <FAX 227-9500> 220-0536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